

# I. 톨스토이 문학에 나타난 전쟁

-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를 중심으로 -

김 성 일  
(청주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러시아 역사에는 수많은 다양한 전쟁이 존재했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통해 발발했던 아니면 비열한 급습을 통해 시작되었던 간에 그와 상관없이, 전쟁은 항상 필연적으로 불행과 혼란, 고통, 인간적 비극을 가져 왔다. 어떤 전쟁이든 그것을 구성하는 두 필연적인 요소는 비극과 영광이다. 러시아 문학 작품들 속에는 『이고리 원정기』로부터 최근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테마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서 이 주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톨스토이 문학 속에서 더욱더 특별하고도 선명하게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 없이는 톨스토이의 삶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전쟁 테마는 그의 문학세계의 중심을 차지하는 주제이다.

톨스토이 문학세계에 있어 전쟁 테마를 다루고 있는 주요 작품(군)으로는 일련의 ‘카프카스 이야기’들과 『세바스토폴 이야기』, 그리고 1812년 조국 전쟁을 다루고 있는 『전쟁과 평화』를 들 수 있다. 사건의 실제 발생 순서에 의하면 『전쟁과 평화』의 조국전쟁이 첫 번째 사건이지만, 창작된 순서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세 작품(군)은 전쟁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작품들에 투영된 작가의 사상은 각기 다른

독특함을 간직하면서 저마다의 발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쟁에 대한 작가의 변화된 총체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톨스토이 문학에 있어 전쟁을 가장 폭넓고 다채롭게 묘사한 작품은 무엇보다도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이다. 두 번에 걸쳐 벌어지는 나폴레옹과의 전쟁과 이 와중에서 소수의 상류층으로부터 다수의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들이 겪는 삶과 운명을 묘사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 슈제트를 구성한다. 작품 속에서 전쟁은 모든 면 - 전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전쟁 참가자 - 에서 검토 및 평가된다.

톨스토이는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 자신의 예술적 원칙으로 선언했던 “피와 고통, 죽음”(в крови, в страданиях, в смерти)이라는 전쟁의 진실에 대한 묘사를 『전쟁과 평화』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작품들에서 작가가 전쟁을 미시적인 현상적 접근방법을 통해 파편화된 세밀화로 제시하였다면, 후자에서는 거시적인 역사적 접근방법을 파노라마의 정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묘사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민중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즉,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며 그것과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통치자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 황제를 비롯한 상류사회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민중의 시각을 통해 전쟁이 묘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의 테마는 이미 1권 첫 장부터 소설 에필로그의 마지막 장까지 평화의 테마와 함께 밀접하고도 확고하게 발전된다. 셰레르(Шерер) 살롱의 손님들은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수도원장 모리오(Морио)가 알려준 영구 평화론의 기획들 중의 하나를 흥미롭게 심의한다. 이 기획은 뻬에르 베주호프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안드레이 볼콘스키에게서는 회의론적 태도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의 특수성에 대해 논쟁하면서도 중요한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인류가 전횡의 모든 죄악들과 그리고 죄악들 중 가장 나쁘고, 다른 모든 죄악들의 근원인 전쟁을 영원히 피할 수 있도록 인권이 모든 문명세계에 의해 인정되고, 민족 간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 것인가.”

이처럼 거대한 의미를 가진 문제가 『전쟁과 평화』의 젊은 주인공들 앞에

제시된다. 향후 그들의 모든 삶은 이 모든 불안과 불행, 고통과 함께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바쳐지게 된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본성에 반대되는 사건”으로의 전쟁에 대한 비난과 “그 전쟁의 결과로 조국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정되는” 전쟁에의 참전 필연성 사이에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시작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톨스토이 문학에 나타난 전쟁의 의미와 주인공들의 변화, 그리고 작가의 역사관 등을 그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서사시 『전쟁과 평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게 전쟁은 더 이상 이전시대의 고전주의적인 애국적 찬가나 낭만주의적 영웅의 고양된 영웅담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온통 함께 뒤엉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삶의 각축장이자 조국의 방어가 절대적 요청인 역사적 전쟁인 것이다. 그 정점을 차지하는 작품이 바로 『전쟁과 평화』인 것이다. 아울러 작가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일개인의 영웅이 아닌, 역사의 합목적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묵묵히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민중의 의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쟁과 역사의 현사실성을 통해 주인공들은 개심(改心)에 이르게 되고 자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는 노정을 걷게 된다.

## II. 톨스토이 문학에서의 전쟁의 주제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자신의 평가 속에서 젊은 톨스토이는 성숙하고 정직하게 사유하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의 주요한 비애감은 전쟁에 참가한 모든 병사들의 양심과 의식에 모순되는 현상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비난이다. 과연 누구에게 정당성이 있는가, ‘외부인의 파괴로부터 자기 땅을 방어하는 가난한 산악민인가 아니면 대위계급이나 혹은 보다 좋은 지위를 좀 더 빨리 얻고자하는 부관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톨스토이는 산악민을 동정하고 짜르 군부를 결정적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해 답했다.

톨스토이는 영원히 생명력 넘치고 훌륭한 자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힘

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에 날카롭게 적대적인 현상으로서 전쟁을 부정한다.<sup>1)</sup> 이 시기의 작품들 속에서 작가가 몰두했던 문제는 사람이 인생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사명이었다. 그는 단지 강하고 의지가 센 인간만이 인간에게 정해진 고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용감함이 있다: 인간의 도덕적인 동기 - 조국에 대한 의무의 감정과 동료에 대한 책임감 - 로 조건지어진 도덕적 용감함, 그리고 인간이 물질적 고려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불보지 않고 금전적 보상 혹은 포상을 받고자 하는 육체적 용감함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용감함은 도덕적 용감함이다. 그것은 인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로 점차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단편 『습격』에서 톨스토이는 고대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견해를 분석한다 - 이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하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다. 톨스토이는 A.A.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 및 그의 모방자들과 논쟁을 벌인다. 그들은 작품 속에서 비범한 주인공, 환상적 사건, 매복으로부터의 발사, 격렬한 말의 도약 등을 그린다.<sup>2)</sup> 하지만 톨스토이는 고안된 주인공들 대신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염려하는, 외견상 전혀 영웅적이지 않은 실제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했다.

『세바스토폴 이야기』로부터 톨스토이의 전쟁과 관련된 많은 창작의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 B.M. 에이헨바움은 세바스토폴에 대한 오체르크를 『전쟁과 평화』로의 독창적인 스케치로 명명했다: 이 작품에서 개별적인 세부적 요소들과 몇몇 인물, 다양한 색조, 그리고 심지어 전쟁 묘사 장르와 가족 묘사 장르의 결합이 미리 준비되었다. 이 세 개의 세바스토폴 이야기는 완전히 『전쟁과 평화』로 나아가는 습작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1) Донна Орвин. *Искусство и мысль Толстого. 1847-1880.* СПб., 2006, с. 122-123. 참조.

2)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의 소설 『아말라트-벡』(Аммалат-бек)의 주인공 아말라트-벡이 대표적인 예이다.

3) B. M. Эйхенбаум. *Лев Толстой. Кн.1, 50-е годы.* Л., 1928, с. 235-239. 『세바스토폴 이야기』와 『전쟁과 평화』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Ю. В. Лебедев. Л. Н. Толстой на пути к «Войне и миру» (Севастополь и «Севастопольские рассказы»)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76, № 4, с. 61-82; От «Севастопольских рассказов» к «Войне и миру» //

『세바스토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체험한 사건의 생생한 흔적에 따라 창작되었다. 1852년 1월에 톨스토이는 포병 복무가 결정되었다. 2년 동안 그는 카프카스에서 복무했다. 그가 강한 새로운 인상과 진지한 문학적 작업의 토대를 갖고 바친 이 기간은 그에게 훌륭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1854년 러시아-터키 전쟁이 발발하자, 톨스토이는 즉시 두나이스카야 군대로의 진출 청원서를 제출했다. 얼마동안 그는 키쉬네프의 군참모부에서 복무하며 몰다비아, 발라히야, 베사라비아 원정에 참여했고 실리스트리아 요새 포위에도 참여하였다. 1854년 11월 12일 그는 몇 차례 봉쇄된 세바스토폴에 다녀왔다. 그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 보다 더 가까이 가 그것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크림 군대로의 진출 희망을 표명했다. 그의 내부에서 사건의 관찰자가 아닌 직접적인 참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 그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인간적이고도 애국적이며 아마도 작가적인 열정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1855년 3월에 톨스토이가 복무하던 부대가 세바스토폴로 옮겨졌고 톨스토이는 세바스토폴의 가장 위험한 곳인 요새에 머무르게 된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참전 경험은 『세바스토폴 이야기』의 삶과 예술적 본질의 이해를 위해 완전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증거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톨스토이가 이 군대이야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가 들은풍월로, 어떤 한 측면에서 쓴 것이 아닌 스스로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쓴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그의 작품에서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독자는 톨스토이에 대해 경험하는 특별한 신뢰가 생긴다.

모든 예술가들처럼 톨스토이는 생생한 창조적 상상력과 환상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의 상상력과 환상은 엄격한 사실적인 경계 속에서만이 작동할 수 있다.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체험하게끔 하는 특별한 예술적 방법을 위해 작가는 스스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해봐야만 했다. 이속에는 톨스토이-작가의 특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너머로 그의 작가적 확신, 그의 예술적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880년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예술적 인상, 즉 감염이란 작가가 자기 독특한 태도로 그가 전하는 감정을 체험한 때에 있어서만 주게 되는 것이요, 자기에게 벌써 전달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또 다시 그대로 반복할 때에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시에서 나온 시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고, 다만 예술작품처럼 생긴 유사품을 제공할 뿐인데...”<sup>4)</sup>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비록 그가 당연히 참가자가 될 수 없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만 절대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전쟁과 평화』는 내적으로 진지하고 검증된 자료로 쓰여졌다. 소설의 주인공들의 사상과 감정은 현저하게 톨스토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거나 혹은 그에 의해, 그를 통해 가공되어진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그의 묘사 속에서 생생하고 진실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소설 속에서 작가는 이 사건과 가까운 동시대성과 독특한 작가적 삶의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의 군인 장면은 이에 대한 적절한 예를 잘 보여준다. 톨스토이 역사 소설의 전쟁 장면이 그에 의해 이해되고 세바스토폴 경험에 의해 확인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세바스토폴 없이 세바스토폴이 톨스토이에게 준 이 삶과 예술적 경험 없이 『전쟁과 평화』는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매우 적절하다.

톨스토이는 귀족계급의 혈통이며 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상류사회를 만연된 거짓말과 거짓된 감정으로 인해 좋아하지 않았다. 톨스토이에게는 일반 민중이 좀 더 가까웠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전쟁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결심했다.

상류사회의 동아리들 속에는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애호가 주류를 이루었고 고 감동적인 연설이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4) “...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то есть заражение, получается только тогда, когда автор сам по-своему испытал какое-либо чувство и передает его, а не тогда, когда он передает чужое, переданное ему чувство. Этого рода поэзия от поэзии не может заражать людей, а только дает подоб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Л. Н. Толсто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22 томах*. Т. 15. М., 1983, с. 129.

참여하지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어떤 관념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과 달리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 톨스토이는 전쟁의 모든 진실을 보여주었다: ‘군인, 일반 농민들이 더럽고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고; 포탄과 수류탄의 폭발로 인해 그들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들은 갈기갈기 찢겨졌으며; 병원은 만원이었고 부상병들은 침대에 누워있거나 바닥에 누워있었으며; 그들을 보살필 인력은 부족했고 의약품도 동이 났다; 마취제 없이 사람들을 수술했으며 여기저기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세바스토폴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어떤 조건 속에 있는지 비애감을 갖고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생존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애가 살아있었다.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톨스토이는 이 전쟁에 대해 생각했다: ‘어째서 전쟁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누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가, 누가 이 계획을 실현하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러움, 피, 죽음’을 목격한다. 일반 농민들은 어떠한 고상한 말도 없이 총알 밑으로 기어들어간다. 이 군인들 중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받지 못했고 그들은 이용당하고 그들의 삶은 못 쓰게 되어 내버려졌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보상은 자신들의 삶이다. 반면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벼운 상처도 입지 않고 자신들의 영웅주의에 대한 메달이나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할 위험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이들은 자신의 공훈, 자신의 대담성에 대해 떠벌이며, 다른 모두 사람들은 순진하고도 매혹된 얼굴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인해 톨스토이는 유명 작가가 되었고 이 진실은 전 러시아를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세바스토폴 전쟁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으로 대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 눈을 뜨도록 할 수는 없었으며 그의 진실은 몇몇 사람들이 메달과 보상 받는 것을 방해했다. 톨스토이는 정부 관리에게 손을 대려는 시도가 무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전쟁과 평화』에서 또 다른 결실을 맺게 된다.

### III. 『전쟁과 평화』에서의 전쟁의 주제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제목인 ‘전쟁’이다. 작가는 고통스러운 역사적 시련기에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고 강조하면서 작품 속에서 “민중 사상”이 실현되었다고 지적한다.<sup>5)</sup> 소설에서 전쟁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실적, 철학적, 도덕적, 실존적 의미를 가진 총체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제시된다.<sup>6)</sup>

소설의 주인공들에게 이 전쟁은 숭고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조국과 자기 친지, 자기 가족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랑스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스크바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는 러시아인에게는 존재할 수 없었다. 프랑스인의 지배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다.”<sup>7)</sup>

『전쟁과 평화』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톨스토이의 견해는 다양하게 전개된다. 우선, 애국자로서 톨스토이는 강도적이고, 약탈적인, 불공정한, 침략적인 전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대한다. 전쟁의 이러한 타입을 작가는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위배되는 사건”(противное человеческому разуму и всей человеческой природе событие)(VI, 7)로 명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을 지키려는 필연성에 의해 소집된 정당한 전쟁이자 방어적 성격을 띤 조국전쟁은 해방전쟁으로서 톨스토이에 의해 숭고한 전쟁으로 고찰된다. 작가는 이 전쟁에 참가하여 조국의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위업을 세우는 사람들을 찬양한다. 톨스토이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5) В.Г. Одинокоев. *Поэтика романов Л.Н. Толстого*. Новосибирск, 1978, с. 54.

6) Я. Билинчис. *О творчестве Л.Н. Толстого*. Л., 1959, с. 230.

7) “для русских людей не могло быть вопроса: хорошо ли или дурно будет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французов в Москве.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французов нельзя было быть: это было хуже всего.”

Л.Н. Толсто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22 томах*. Т. 6. М., 1980, с. 289. 이하 『전쟁과 평화』 인용 시 이 판본에 의거하여 본문에 권수와 쪽수만을 표시하기로 함.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그는 강조한다.

톨스토이는 전쟁의 연대기 보다는 전쟁의 가장 주요한 사실인 살인에 흥미를 느낀다. 모든 철학적 사유, 주인공의 행위와 반박, 작가의 주석 속에서 위대한 휴머니스트의 위치는 공개적으로 혹은 모호하게 들린다: “전쟁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전쟁의 도구는 간첩, 반역의 장려, 주민의 황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강탈과 절도,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은 속임수와 거짓말이야.”(Цель войны - убийство, орудия войны - шпионство, измена и поощрение ее, разорение жителей, ограбление их или воровство для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армии; обман и ложь, называемые военными хитростями.)(VI, 219)

전쟁 속 인간의 죽음은 추상적인 철학적 빛깔로 채색된 것이 아닌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빼짜 로스토프의 죽음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죽음은 제니소프와 돌로호프의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 죽음은 단순하고도 간결하게 묘사된다. 이것을 통해 엄정한 사실주의의 묘사가 그 깊이를 더하게 된다. 톨스토이는 다시 한 번 되묻는다. ‘전쟁은 무시무시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인간에게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어째서 평범한 인간이 소년을 죽여야만 하는가. 어째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가?’ 톨스토이는 독자들 앞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sup>8)</sup>

전쟁은 또한 사람들의 운명 속을 사정없이 파헤치고 들어가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일그러뜨린다. 로스토프 가정은 모스크바를 버린다. 전쟁에서 젊은 빼짜 로스토프는 전사한다. 영애 마리야는 거의 전 인생을 살았던 보구차로보를 버린다. 빼에르 베주호프는 포로로 잡혀 고통스러운 생활을 체험한다. 나타샤는 영혼 깊은 곳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의해 동요되고 삶의 역량 앞에서 공포의 감정을 맞본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은 톨스토이 주인공들에게 인간의 의미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sup>9)</sup> 로스토프 가정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8) A.B. Гулин. *Лев Толстой и пути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М., 2004, с. 129.

9) В.Я. Линков. *Мир и человек в творчестве Л. Толстого и И. Бунина*. М., 1989, с. 39.

버리고 모스크바를 떠나는 와중에 나타샤는 부상병 수송을 위해 모든 짐마차를 선뜻 넘겨주고 이후 안드레이 공작을 헌신적으로 돌본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타샤는 트이찌쉬에서 안드레이 공작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른바 전쟁과 이 만남 덕분에 그녀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나이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불꼰스끼 노인은 조국을 방어하는 외아들을 전심으로 지원한다. 그는 아들을 잃는 것보다 소심함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 치욕이 그를 위협하지 못했으며 그는 아들을 진정한 애국심으로 양육했다. 공작 영애 마리아는 비록 프랑스 군인들이 그녀에게 보호를 제안했지만 르이스이에 고르이를 떠났다. 출발 전에 그녀는 니꼰라이 로스토프를 만났고 이 만남은 그녀의 운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 빼에르 베주호프 역시 고통스러운 포로생활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지혜를 획득하여 진정으로 조국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웅들을 전쟁을 통해 시험하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당당하게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다.

전쟁의 무서운 위협에 대항하여 모두가 싸우는 상황에서도 이들과 달리 군사적 위협의 시기에도 평화로운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꾸라긴 집안, 여관 쉼레르, 안나 미하일로브나 드루베츠까야, 베르그, 베라 로스토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톨스토이는 민중적 애국심에 이들 상류층의 거짓 애국심을 대조시킨다. 그는 상류층의 근본 목적이 “십자훈장, 돈, 관등”을 얻는 것임을 간파했다. 그들의 행위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살롱에서 나폴레옹의 호화로움에 대한 유행을 좇는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는 타인의 비극 속에서 돈벌이를 한다. 모스크바 귀족의 애국심은 프랑스 식사 대신 러시아 양배추국을 먹고 프랑스 말을 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실주의 작가로서 톨스토이는 작품 속에서 전쟁을 힘든 수고와 피, 고통, 죽음 등으로 점철된 것으로 묘사한다. 전투 전 진군 장면은 전쟁의 힘든 수고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들 중의 하나이다.

Князь Андрей с презрением смотрел на эти бесконечные,

мешавшие команды, повозки, парки, артиллерию... со всех сторон, позади и впереди, покуда хватал слух, слышались звуки колес, громыхание кузовов, телег и лафетов, лошадиный топот, удары кнутом, крики понуканий, ругательство солдат, денщиков и офицеров... Солдаты, утопая по колено в грязи, на руках подхватывали орудия и фуры... (IV, 208-209)

끝없이 줄을 지은 군대, 군용 마차, 수송차, 포병대, 그리고 또 서로 앞질러 가려다가 세 줄 또는 네 줄이 되어 나란히 진흙길을 꼭 메우면서 서로 앞지르거나 뒤따르거나 하고 있는 가지가지의 온갖 차량을 안드레이 공작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수레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 마차와 포차의 차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 말발굽 소리, 채찍의 울림, 말을 꾸짖는 목소리, 병사들이며 중졸들이며, 장교들의 서로 욕하고 꾸짖는 목소리 등이, 청각이 미치는 한의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 병사들은 무릎까지 진흙 속에 빠져, 대포와 수송차에 두 손으로 매달려 있었다.

이 장면묘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거대하게 집중된 인간의 힘과 극도로 피곤함을 느낄 정도의 노동의 무게를 느낀다. 그리고 여기에 쉐그라벤스크 전투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장면이 더해진다. 러시아 군대의 도주의 혼란함이 느껴진다.

Пехотные полки, застигнутые врасплох в лесу, выбегали из леса, и роты, смешиваясь с другими ротами, уходили беспорядочными толпами... (...) но в эту минуту французы, наступавшие на наших, вдруг, без видимой причины, побежали назад... и в лесу показались русские стрелки. Это была рота Тимохина... Бегущие возвратились, батальоны сообрались, и французы были... отеснены. (IV, 239-240)

숲 속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한 보병 연대는 허겁지겁 숲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중대와 중대가 함께 뒤섞이면서 무질서한 패를 이루어 도망쳤다. (...) 그런데 이때까지 아군을 추격하고 있던 프랑שב병이 이렇다 할 원인도 없이 갑자기 후퇴해서 숲 근처에 숨어버렸다. 그러자 숲 속에 러시아의 저격병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 찌모힌 중대였다. (...) 뛰어 달아나고 있던 병사들은 되돌아오고, 대대는 집결됐다. 프랑שב군은 순식간에 격퇴되

어 버렸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다. 격렬한 전투가 끝난 후 남겨지는 것은 고통과 죽음뿐이다.

(...) в темноте как будто текла невидимая мрачная река... В общем гуле из-за всех других звуков яснее всех были слышны стоны и голоса раненых... Из стоны, казалось, наполняли собой весь этот мрак, окружавший войска. Их стоны и мрак этой ночи - это было одно и то же.” (IV, 246)

(...) 어둠 속에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칙울한 강이, 속삭임과 이야기 소리와 말굽과 수레바퀴 소리를 울려대면서 줄곧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으르렁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는 속에서, 다른 어떤 울림보다도 가장 또렷하게 부상자의 신음소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 들렸다. 그들의 신음과 이 밤의 어둠, 그것은 모두 같은 것이었다.

소설의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평화는 전쟁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평화의 내용과 욕망은 노동과 행복, 자유로움과 자연적인 것이며 따라서 개성의 행복한 발현이다. 전쟁의 내용과 욕망은 인간의 분리, 파괴, 죽음, 슬픔이다. 아우스체를리쯔 전투 이후 러시아 군의 후퇴 때 아우게스트 제방에서 수백 명이 처한 죽음의 공포를 강조하기 위해 톨스토이는 이전 시대의 이곳의 풍광을 지금과 대비시킨다.

столько лет мирно сживал в колпаке старичок-мельник с удочкам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внук его, засучив рукава рубашки, перебирал в лейке серебряную трепещущую рыбу (...) столько лет мирно проезжали на своих парных возах, нагруженных пшеницей, в мохнатых шапках и синих куртках моравы и уезжали по той же плотине, запыленные мукой, с белыми возами. (IV, 364)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아우게스트의 좁은 독에 늙은 물레방앗간 주인이 실내모를 쓰고 낫싯대를 한가롭게 드리우고 있으며 그 옆에서는

손자가 루바쉬가의 소매를 건어붙이고 다래기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은빛 물고기를 휘젓고 있는 광경이라든가, (...) 또 털이 부풀부풀한 모자를 쓰고 파란 자켓을 입은 모라비아 인이 밀을 실은 두 필의 말이 끄는 짐수레를 타고 느릿느릿 갔다가 마침내 짐수레까지 밀가루 투성이가 되어 돌아가는 평화로운 광경을 오랜 세월 동안 보여 왔다.

또한 이러한 대비를 통해 톨스토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에 대해 언급한다.

На этой узкой плотине теперь между фурами и пушками, под лошадьми и между колес толпились обезображенные страхом смерти люди, давя друг друга, умирая, шагая через умирающих и убивая друг друга для того только, чтобы, пройдя несколько шагов, быть точно так же убитыми. (IV, 364-365)

이 좁은 독 위에서, 지금 죽음이 공포 때문에 불꽃 사나운 현상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송차며 포차 사이, 말 밀, 수레바퀴 사이를 밀치락 덮치락 득실거리면서 탄환 밑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쓰러진 차를 밟고 넘어가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겨우 몇 걸음도 나아가기 전에 같은 시체가 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동일한 제방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톨스토이는 독자에게 좀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이러한 인상은 보로지노 전투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다음 장면에서 유사하게 다시 그려진다.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тысяч человек лежало мертвыми в разных положениях и мундирах, на полях и лугах... на тех полях и лугах, на которых сотни лет... собирали урожай и пасли скот крестьяне. На перевязочных пунктах на десятый места трава и земля были пропитаны кровью. (VI, 272)

몇 만 명의 사람이 다비도프네와 국유 농장에 속하고 있는 밭과 풀밭에 가지가지의 군복을 입고 가지가지의 자세로 시체가 되어 누워있었다. 그곳은 보로지노와 고르끼와 쉘바르지노와 세묘노프스꼬예 마을의 농부들이 몇 백 년 동안 거뒀들이고 하고 가축을 치기도 한 곳이었다. 의무실마다

1제사찌나 정도 내에는 흠에도 풀에도 피가 배어 있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톨스토이는 한편으로 자연과 예지의 위대함과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광기의 대비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전쟁의 공포와 무의미를 보여주면서 전쟁과 살인이 인류에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아우스제를리쯔 전투의 또 다른 장면에서 전쟁의 무의미함을 보다 깊이 있게 제시한다. 아우스제를리쯔 전투의 비관적 순간에 적의 대대를 공격하도록 한 안드레이 불콘스끼의 위업은 군인적 용감함과 영웅적 당당함으로 가득 차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땅바닥에 쓰러진 그는 갑자기 자기 위에 끝없이 펼쳐진, 희색 구름이 흘러가는 높은 하늘을 보게 된다.

Как тихо, спокойно и торжественно, совсем не так, как я бежал, - подумал князь Андрей, - не так, как мы бежали, кричали и дрались совсем не так, как с озлобленными и испуганными лицами тащили друг у друга банник француз и артиллерист, - совсем не так ползут облака по этому высокому, бесконечному небу. Как же я не видал прежде этого высокого неба? И как я счастлив, что узнал его наконец. Да! все пустое, все обман, кроме этого бесконечного неба. Ничего, ничего нет, кроме него. Но и того даже нет, ничего нет, кроме тишины. успокоения. И слава богу!... (IV, 354)

‘어쩌면 이렇게도 조용하고, 평온하고, 엄숙할까. 내가 달리고 있었던 때와는 전혀 판관이 아닌가?’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뛰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던 것과는 전혀 판이하다. 그 프랑스병과 포수가 적의에 불타고 공포에 질린 낮으로 서로 세상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드높고 끝없는 하늘을 흘러가고 있는 구름은 전혀 다르다. 어쩌서 나는 여태까지 이 높은 하늘을 보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제 간신히 그것을 깨달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다! 이 끝없는 하늘 이외의 것은 모두 허무하다.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하늘마저도 없어졌다. 정적과 평안 이외

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 훌륭하다!...

“꺾 수 없이 높은” 하늘의 형상은 그것의 조용하고 고요하며, 장엄함과 함께 소설의 모든 전쟁 장면을 넘어 평화와 전쟁의 모티프들의 항쟁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삽입된다. 이 작품의 주요한 사상 중의 하나는 전쟁, 영웅주의, 군인의 특별한 사명에 대한 안드레이 공작의 환멸과 개심(改心)이다.<sup>10)</sup> 만일 전에 그가 공훈을 세우고, 군대를 구원하는 것을 꿈꿨다면 이제 그는 전쟁은 나의 집이 부서지고 모스크바를 파괴하기 위해 갈 때 그때만이 가능한 무서운 필연성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군인 집단은 무위도식, 잔혹함, 방탕함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안드레이의 마지막은 당연하다. 죽기 직전 그는 생각한다: ‘이게 정말 죽음이라는 걸까?’ (...)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삶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풀과 흙과 공기를 사랑하고 있다...’(Неужели это смерть? (...) Я не могу, я не хочу умирать, я люблю жизнь, люблю эту траву, землю, воздух...) (VI, 262) 그래서 애석함의 뜨거운 감정이 우리를 감싼다, 우리가 그의 임종의 질문을 읽을 때: ‘왜 나는 이 세상의 삶에서 떠나기를 그토록 안타까워했던가?’ (Отчего мне так жалко было расставаться с жизнью?)(VI, 264)<sup>11)</sup>

톨스토이는 전투가 끝난 보로지노 평원의 묘사에서도 역시 전쟁의 무의미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Над всем полем, прежде столь весело-красивым, с его блестками штыков и дымами в утреннем солнце, стояла теперь мгла сырости и дыма и пахло странной кислотой селитры и крови. Собрались тучки, и стал накрапывать дождик на убитых, на раненых, на испуганных, и на изнуренных, и на сомневающих людей. Как будто он говорил: «Довольно, довольно, люди. Перестаньте...

10) И.В. Чуприна. *Нравственно-философские искания Л. Толстого в 60-е и 70-е годы*. Саратов, 1974, с. 135-136.

11)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의 개심(改心)과 고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Б.И. Берман. Откровения князя Андрея. (in) Б.И. Берман. *Сокровенный Толстой*. М., 1992, с. 81-135.

Опомнитесь. Что вы делаете?» (VI, 272)

아침 햇살을 받은 총검의 번뜩임과 초연으로 아까까지 것처럼 즐겁고 아름답게 보였던 싸움터 위에는 습기와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자욱이 끼고, 야릇하게 시큼한 질산칼륨과 피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이윽고 먹장구름이 몰려와 죽은 사람이며 부상한 사람이며 놀란 사람이며 지친 사람이며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부슬부슬 가랑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다 됐다, 인간들아, 그만두렴... 이제 정신을 차리렴.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전투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 자기 행위의 무서움을 직감하며, 기꺼이 중지하고 싶은 기분이 되지만, 그러나 전쟁의 잔혹한 기계는 계속해서 작동한다,

и ядра так же быстро и жестоко перелетал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и расплюскивали человеческое тело, и продолжало совершаться то страшное дело, которое совершается не но воле людей, а по воле того, кто руководит людьми и мирами.(VI, 272)

포탄은 여전히 양군에서 맹렬하고 잔혹하게 날아가고 날아와 인간의 육체를 분쇄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의해서 성취되는 무서운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 말들 중에서 소설의 작가는 “사람과 평화를 조종하는 사람”을 전쟁의 “무서운 일”의 진정하고 유일한 죄인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면 톨스토이의 소설은 없어도 모르며 그 속에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 힘의 머리에는 “민중의 억압자”인 나폴레옹이 그것의 우두머리인 “죄”의 힘과 꾸뛰조프에 의해 영도되는 “민중 전쟁”의 “선”의 힘과의 항쟁이 없을 지도 모른다.

## IV. 침략 전쟁과 송고한 전쟁

『전쟁과 평화』 속에서 톨스토이는 19세기 초 두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1805-1807년 전쟁과 1812년 조국전쟁. 이것은 장편소설의 토대를 구성한다. 첫 번째 전쟁은 타국에서 이루어졌으며 평범한 인간에게 이해되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정치적 안정, 개별적으로 선별된 사람들의 출세 혹은 집안의 행복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의 존재가 이 전쟁의 결과는 달려있기 때문이다.

### 1. 1805-1807년 전쟁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전쟁의 장면을 올바르게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쉐그라벤과 아우스제를리쯔, 보로지노 전투가 제시된다.

세계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나폴레옹의 야망은 유럽의 3개 열강의 연합국과 프랑스 사이의 1805년 러시아-오스트리아-프랑스 전쟁으로 이끌었다. 실제로 이 전쟁은 훨씬 더 이전인, 단지 이 전쟁을 아직 누구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1799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시작은 1805년과 관련된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제국에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이 전쟁은 시작되었다. 자신의 동맹국의 의무를 지키는 러시아 역시 프랑스에 전쟁을 선언한다. 그러나 군사 활동은 오스트리아 영토에서만 진행되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큰 비극은 울름(Ульм) 근처의 오스트리아 군대의 패배였다. 마크 장군의 8만 군대를 잃은 것은 이 전쟁의 전 기간 동안 동맹군을 뒤따르는 긴 실패의 사슬의 시작이었다. 이전까지 예비대로 있었던 러시아 군대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대체해야만 했다. 동맹군 사령부는 꾸뚜조프의 군대 진격을 재촉했으나 꾸뚜조프는 러시아 군대가 아직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도착한 군인들의 예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재촉했고 러시아 군대는 수비전을 자주 하면서 후퇴해야만 했다.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뛰어난 사령관으로서의 자신을 보여주었다. 동맹국을 개별적으로 분쇄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명확히 의식한 나폴레옹은 러시아 군대를 포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꾸뛰조프는 포위로부터 군대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프랑스 군은 패배를 당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아우스페를리쯔 전투이다. 오스트리아 도시 아우스페를리쯔 주위에서 급작스러운 전투의 돌발 속에서 7만의 프랑스 군대와 8만의 러시아-오스트리아 군대가 충돌했다. 동맹군은 수적인 우세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성공할 모든 기회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베이로쎬르 장군의 성공적이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 아우스페를리쯔 전투는 패배했다. 꾸뛰조프는 장군의 실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며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하고자 했으나 그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서 또한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전쟁 능력을 보여주었다. 상황을 제대로 평가한 후, 보나파르트는 전투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동트기 전에 전투가 시작된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군인들의 대열에 포탄과 수류탄의 빗발치듯이 퍼붓는다. 저녁 무렵 싸움터에서 죽은 수천 명의 군인들을 잃고 난후, 동맹군은 철수하기 시작한다. 손실은 엄청났다. 모든 잇닿아있는 평원은 전사자와 부상병으로 가득 찼다. 부상병은 무리로 기어서 모여들었고 그곳으로부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퇴각로에 도하장소인 좁은 제방이 하나 있었다. 그곳을 따라 강을 건너는 것이 필요했다. 자연적으로 그곳에는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된다. 톨스토이는 동맹군이 처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На этой узкой плотине теперь между фурами и пушками, под лошадьми и между колес толпились обезображенные страхом смерти люди, давя друг друга, умирая, шагая через умирающих и убивая друг друга для того, только, чтобы, пройдя несколько шагов, быть точно так же убитыми. Каждые десять секунд, нагнетая воздух, шлепало ядро или разрывалась граната в середине этой густой толпы, убивая и обрызгивая кровью тех, которые стояли близко. (IV, 365)

이 좁은 독 위에서, 지금 죽음이 공포 때문에 볼풀 사나운 현상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송차며 포차 사이, 말 밀, 수레바퀴 사이를 밀치락 덮치

락 득실거리면서 탄환 밑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쓰러진 차를 밟고 넘어가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겨우 몇 걸음도 나아가기 전에 같은 시체가 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장면은 공포스럽고 그 무엇도 무익한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없었으며 전투는 막대한 손실을 내고 패배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벗어났고 평화조약이 조인되었으며 동맹은 파탄이 났다.

## 2. 1812년 전쟁

평화는 회복되었지만 잠시 동안이었다. 새로운 정복욕이 나폴레옹을 새로운 전쟁으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1812년에 여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60만 명 이상의 프랑스 군대가 강력한 파도처럼 러시아 땅으로 돌진하였다. 러시아 군대는 숫자에서 프랑스 군대에 비교가 안 되었으므로 후퇴해야만 했다. 그러한 후퇴는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보로지노 평원에서의 전투가 결정되었다. 두 진영은 성공적으로 전투 준비를 했으며 무엇으로도 러시아 군과 프랑스 군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프랑스 군인들은 나폴레옹의 명령의 결과가 아닌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보로지노 전투에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 왔다. 그들로부터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군대를 염두에 둔 프랑스 군대, 이탈리아 군대, 독일군대, 폴란드 군대 등 모든 군대는 원정에 의해 배고프고 누더기가 되고 피로했으며 “포도주 뚜껑이 열렸으면 그것을 마셔야만 한다.”(le via est tiré, il faut le boire)(VI, 232)고 느꼈다. 만일 나폴레옹이 그들에게 러시아 군과 싸우는 것을 즉각 금지시켰다면 그들은 그를 죽이고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갔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필연적이었기 때문이다.

8월 26일 보로지노 전투의 아침은 포병의 포격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 프랑스 연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진 평원은 폭발한 포탄의 연기로 뒤덮였으며 공기 속에서는 날카로운 탄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고 날아가는 포탄의 끊임없는 확확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백문의 대포가 적을 향해 발사되었고 명령에 복종하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죽음을 가지고 오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이 전쟁이 진행되었다. 정오쯤 전투가 그

쳤다.

커다란 손실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보로지노 전투의 결과 프랑스 군대는 5만 명이 넘는 군인을 잃었고,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 군은 4만 4천명의 군인을 잃었고 자신의 기본적인 힘을 보존할 수 있었고 모스크바를 향해 후퇴했다. 프랑스 군은 보로지노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고 자신들의 움직임의 관성에 따라 버려진 모스크바로 밀려들어갔다. 프랑스 군이 텅 빈 모스크바에 입성하자마자 이것은 이미 군대가 아니었다. 약탈병의 무리가 무서운 적으로 자신들의 도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1812년 전쟁의 개시는 톨스토이에 의해 다른 전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전쟁의 시작으로 제시되었다.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위배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Совершилось противное человеческому разуму и всей человеческой природе событие)(VI, 7)라고 작가는 쓴다. 그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며 그것을 그 원인을 결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정치적 상황의 이유로” 서로서로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살인과 폭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무수한 사실들로 주장하면서 작가는 말한다.

1812년 전쟁의 성격은 스몰렌스크 봉쇄 때부터 바뀌게 된다. 즉 전쟁은 민중 전쟁이 된다. 이것은 스몰렌스크 화재의 장면에 의해 확실히 증명된다. 상인 페라뽀토프와 프리즈 외투를 입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곡물창고를 태우고 불끈스기 공작을 보살펴주는 알빠뜨이치, 도시의 거주민들 - 이 모든 사람들이 “생생한 즐거움과 괴로움의 얼굴로” 화재를 바라보며 단일한 애국심의 북받침과 적에 대한 저항감으로 사로잡힌다. 귀족계급들 중에서 보다 훌륭한 사람들 역시 이 감정들을 맞보며 민중과 한데 합쳐진다. 언젠가 깊은 개인적 경험 이후 러시아 군에서 복무하기를 거부했던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의 변화된 시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랑스인은 우리 집을 황폐케 하고도 양이 차지 않아 모스크바까지 황폐케 하려고 덤벼들고 있어. 그들은 나를 끊임없이 모욕했고

지금도 모욕하고 있어. 놈들은 내 원수야. 놈들은 범죄자로밖에 보이지 않아. 쩌모힌이나 군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Французы разорили мой дом и идут разорить Москву, и оскорбили и оскорбляют меня всякую секунду. Они враги мои, они преступники все, по моим понятиям. И так же думает Тимохин и вся армия.)(VI, 217) 이 단일한 애국적 북받침은 특히 선명하게 톨스토이에 의해 보로지노 전투 전날 기도 장면에서 제시된다. 군인들과 민병들은 스몰렌스크에서 가져온 이콘을 “동일하게 정신없이” 바라본다. 그리고 이 감정은 마치 보로지노 평원의 이곳저곳을 방문했던 빼에프 베주호프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이해되었다. 이러한 애국심의 감정으로 인해 민중들은 모스크바를 내버려두게 된다. “프랑스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스크바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는 러시아인에게는 존재할 수 없었다. 프랑스인의 지배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다.”(Они ехали потому, что для русских людей не могло быть вопроса: хорошо ли или дурно будет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французов в Москве.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французов нельзя было быть: это было хуже всего.)(VI, 289) 라고 톨스토이는 썼다.

이 시대의 사건에 대해 완전히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면서 작가는 이른바 민중이 역사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왜냐하면 감춰진 그의 애국심은 문구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 “몰래,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모든 가장 강력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사람들은 로스토프 가족처럼 자신의 소유물을 남겨두고 모든 짐마차를 부상병에게 내주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치욕처럼 느껴졌다. “우리들은 독일인 따위와는 다르니까 말이지...”(Разве мы немцы какие-нибудь?)(VI, 91) 나타샤는 분개했고 백작부인-어머니는 남편에게 그가 집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애들을 파멸시키고자 한다고 한 책망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사람들은 적에게 아무 것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 적이 축하 행사를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집들을 태웠다. 나폴레옹은 수도를 통제하려고 했으나 그의 명령은 방해를 받았고, 마침내 완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작가가 정의하고 있다시피, 나폴레옹은 “마차

내부에 묶여있는 끈을 붙잡고 그가 다스리는 것을 상상하는 어린아이와 비슷하게” 된다.

작가의 관점에서 역사 속 개인의 역할은 자신의 개성이 흘러가는 순간의 진행에 부합함을 느끼는 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른바 꾸뛰조프는 사람들의 분위기, 군대의 사기를 느끼며 자신의 지휘를 통해 그들에게 일치시킨다. 이러한 변화의 추적을 통해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령관의 성공을 설명한다. 꾸뛰조프를 제외하고 누구도 사건의 자연적인 흐름의 추적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르몰로프, 밀로라도비치, 뿔라또프 등은 모두 다 프랑스군의 신속한 궤멸을 원했다. 연대가 바지마 주위를 공격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다.” 그러나 단지 꾸뛰조프만이 자신의 노인의 지혜로 이 공격의 불필요성을 이해한다: “모스크바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 싸우지도 않고 적군의 3분의 1이 소멸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는가?” (Зачем все это, когда от Москвы до Вязьмы без сражения растаяла одна треть этого войска?)(VII, 126), “민중 전쟁의 몽둥이는 엄청나게 맹렬한 힘으로 치켜들렸다.”(Дубина народной войны поднялась со всей своей грозной и величественной силой)(VII, 131) 그리고 계속되는 사건의 모든 진행은 이것을 확증한다. 빨치산 부대는 장교 바실리 제니소프, 강직한 민병대원 돌로호프, 농민 찌혼 슈르바뜨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단결시킨다.

1805년 전쟁을 묘사할 때 톨스토이는 작가-반전문자로 등장하지만, 1812년 전쟁을 묘사할 때는 저자는 애국심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톨스토이는 외국에서 벌어진, 이전 동맹국들의 1805-1807년 전쟁과 달리 1812년 전쟁을 러시아인들의 눈에 의의가 있고 정당화된 민중적 결전으로서 재현하고 특징 지었다.

조국 전쟁은 러시아의 수많은 힘들을 단일한 하나로 결속시켰다.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은 조국 방어를 위해 분기했다. 프랑스군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전날 밤 “주민 일동이 마치 입을 모은 듯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모스크바에서 철수하면서 이 부정적인 행위로서 국민적인 감정의 힘을 유감없이 표시했다.”(все население, как один человек, бросая свое имущество, потекло вон из Москвы, показывая этим отрицательным действием всю силу своего народного чувства.)(VI, 354) 유사한 의견일치가 러시아 각지의 주민들에게도 특징적이었다. “스몰렌스크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모든 도시, 모든 촌락에서는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Начиная от Смоленска,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и деревнях русской земли происходило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в Москве.)(VI, 288)

톨스토이는 이상화를 삼가며 전쟁을 “피투성이의 고통 속 죽음으로” 매우 사실그대로 묘사하고 제시하였다. 그는 부상, 불구의 장면과 특정 장교들의功名심, 출세욕, 허울 좋은 용기, 관등과 포상에 대한 집착 등의 표출에 대해 눈을 감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러시아 군인과 장교들은 용맹함, 영웅적 용기, 확고함, 헌신성의 기적을 보여준다. 소설의 저자는 전쟁 동안 일어나는 혼란, 걱정, 공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회피하지 않았다. 아우스테를리츠 전투에서 그러했다: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의 불쾌한 의식이 대열 사이에 번졌다. (...) 군대는 이러한 동안 지루해지고 풀이 죽어 서 있었다.”(по рядам пронеслось неприятное сознание совершающегося беспорядка и бестолковщины, (...) Войска между тем стояли, скучая и падая духом.)(IV, 341-343)가 그 좋은 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근본적인 관심은 러시아 군대의 계획되고 명확히 시행된 영웅적 공격에 집중되었다.

언어의 위대한 예술가는 민중을 성스러운 전쟁의 주요한 참여자로서 제시한다. 그는 1812년 교전을 알렉산드르 1세와 나폴레옹의 접전으로서 해석하는 것을 부정한다. 톨스토이에 의하면 전투의 운명과 모든 전쟁의 결과는 뚝뚝, 찌모신, 까르프, 블라스와 같은 사람들에 좌우된다. 즉, 그들로부터 힘, 에너지, 전투적인 사기, 승리에 대한 의지 등이 나오며, 단지 각각의 사람이 아닌 전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전쟁을 재현하면서 작가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파노라마 묘사에 의해 제

한되지 않으며 쉘그라벤 근처에서의 마그라찌온 부대의 영웅적인 이동 혹은 보로지노 전투와 같은 그런 펼쳐진 전쟁터 장면 묘사에 만족하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전투의 개별 참가자들을 근접시점을 통해 보여주고 그들에게 소설의 전체 페이지들을 할애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이들에게 집중시킨다. 톨스토이는 쉘그라벤 전투의 영웅인 뚜션 대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매우 똑똑하고 선한 눈을 가진 작고, 마른, 지저분한 포병장교로. 그의 얼굴에는 완전히 전투적이지는 않은, “약간 우습지만, 매우 매력적인” 것이 있다.(IV, 225) 이 겸손하고 수줍음 많이 타는 인간 역시 놀랄만한 공훈을 세운다. 호위대를 잃은 자신의 포병중대와 함께 그는 전투 내내 프랑스군을 붙잡고 있었다. “어느 방면을 무엇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아무한테서도 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평소 몹시 존경하고 있는 자하르첸코와 의논하여 마을을 태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한 것이었다.”(Никто не приказывал Тушину, куда и чем стрелять, и он, посоветовавшись своим фельдфебелем Захарченком, (...) решил, что хорошо было бы зажечь деревню.)(IV, 228) 그 역시 안드레이 공작이 그의 이 행동을 정의하는 것처럼 “영웅적 확고함”을 나타내면서 쉘그라벤을 불태운다.

보로지노 전투를 재현하면서 작가는 영웅들의 용감한 행동과 위업을 또다시 보여준다. 이것은 라엡스끼 포병중대의 포병들이며 그들은 재빨리 “배 끄는 인부 식으로”(по-бурлацки)(VI, 243) 장전하고 프랑스군에게 파멸적인 반격을 퍼붓는다. 이것은 라엡스끼 장군 자신의 공훈이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제방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과 함께 옆에서 무서운 불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 장교를 포로로 잡은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행동 역시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각 개인의 조국애에 바탕한 용감한 영웅적 행동들로 인해 러시아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 V. 오만한 영웅과 겸손한 영웅

『전쟁과 평화』에서 마치 두 사상적 중심과 같은 인물이 존재한다: 나폴레옹과 꾸뛰조프.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의 탈관에 대한 사상이 러시아인들의 입

장에서는 1812년 전쟁이 정당한 전쟁의 성격을 띠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폴레옹의 이미지는 톨스토이에 의해 “민중적인 사상”의 입장에서부터 밝혀지게 된다. “뚱뚱한 배”, “짧은 다리의 기름진 넓적다리”, “흰 포동포동한 목”, 넓고 “살진 어깨”에 “살찐 작달만한 모습” - 이것이 나폴레옹의 특징적인 외모이다. 보로지노 전투 전날 나폴레옹의 아침 화장을 묘사할 때 톨스토이는 프랑스 황제의 최초의 초상화적 특성의 폭로적인 성격을 강화시킨다: “뚱뚱한 등”, “뚱뚱한 가슴”, “잘 손질된 몸”, “붓고 누런” 얼굴, “통통한 어깨” - 이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노동의 삶으로부터 소외되고 민중적 삶의 토대에 아주 낯선, 살이 피둥피둥 찐 사람을 그려내고 있다.

나폴레옹은 모든 우주가 그의 의지에 복종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도취적 인간이었다.<sup>12)</sup> 사람들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때로 신랄한 야유로 옮겨가면서 미묘한 아이러니로 작가는 세계 체폐에 대한 나폴레옹의 지향, 역사를 위한 그의 항상적인 거드름, 그의 위선 등을 밝혀낸다.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연기하며, 그의 행동과 말 속에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은 톨스토이에 의해 보로지노 들판에서 나폴레옹이 아들의 초상화를 만족스럽게 보는 장면에서 표현되고 제시된다.

물론, 이것은 순전한 연기이다. 그는 여기서 “아버지다운 정다움”의 진정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이른바 역사를 위해 자세를 취하고 배우노릇을 했다. 이 장면은 모스크바의 점령과 함께 러시아는 항복하고 세계 점령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폴레옹의 자신만만함을 잘 드러낸다.

톨스토이는 일련의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나폴레옹을 도박자와 배우로 묘사한다. 보로지노 전투 전날 나폴레옹은 말한다: “장기의 말을 늘어놓았다. 그 게임은 내일 시작되는 거야.”(Шахматы поставлены, игра начнется завтра.)(VI, 231) (3권 29장) 전투의 날에 첫 번째 대포 발사 후 작가는 주목한다: “게임은 시작된 것이다.”(Игра началась.)(VI, 235) 계속해서 톨스토이는 이 “게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12) Г.Я. Галаган. Л. Н. Толст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этические искания. Л., 1981, с. 80-87.

전 세계를 노예화하고자 하는 나폴레옹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성격은 그렇게 폭로되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닌 무자비한 필연성이다.”라고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한다. 바로 이점에 전쟁에 대한 원칙적으로 다른 접근이 있다. 이것은 조국의 하늘 위에 노예화의 위협이 드리우는 비상한 상황에서 무기를 잡아야만 하는 평화로운 민중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전투 과정이 자신의 명령에만 달려있다고 간주한다. 톨스토이는 보로지노 전투 때 이러한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폴레옹은 자기의 처방약 때문에 오히려 병을 더 심하게 하는 의사의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러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 왔던 그 자신조차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Наполеон не видел того,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их войск играл роль доктора, который мешает своими лекарствами, - роль, которую он так верно понимал и осуждал.)(VI, 252)

이렇게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이 전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알렉산드르 1세 역시 아우스쉴리쯔 전투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전투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그는 전쟁터를 떠나버린다.

민중과의 융합, 평범한 사람들과의 단합을 통해 작가는 꾸뛰조프를 역사적인 활동가의 이상이자 인간의 이상으로 만든다.<sup>13)</sup> 꾸뛰조프는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다. 우세한 자세, 위선은 그에게 낯설다. 꾸뛰조프는 보로지노 전투 전날 프랑스 감상주의 소설인 마담 드 장리스 『백조의 기사』(«Les chevaliers du Cygne»)를 읽는다. 그는 위대한 인간으로 간주되기를 원치 않는다. 꾸뛰조프의 행동은 자연적이며 저자는 그의 노년의 연약함을 점차 강조해간다. 소설에서 꾸뛰조프는 민중적 지혜의 표현자이다. 그의 힘은 그가 민중을 고양시키고 이것에 맞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잘 아는 데에 있다.

13) Г.Я. Галаган. Ibid., с. 87-93.

Источник этой необычайной силы прозрения в смысл совершающихся явлений, лежал в том народном чувстве, которое он носил в себе во всей чистоте и силе его. Только признание в нем этого чувства заставило народ такими странными путями его, в немилости находящегося старика, выбрать, против воли царя, в представителя народной войны.(VII, 197)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한 이런 비상한 통찰력의 원천은 꾸뛰조프가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또 힘차게 자기 내부에 지니고 있었던 민족적 감정에 있었던 것이다. 국민이, 그의 내부에 있는 이러한 감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황제의 미움을 사고 있던 이 노인을 그토록 기묘한 방법으로 황제의 의견을 거슬러가면서 국민적인 전쟁의 대표자로 선출했던 것이다.

꾸뛰조프는 병사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중의 의지를 충만하게 했을 뿐이다. 많은 장군들이 꾸뛰조프에게 프랑스 군인들을 공격하라고 조언했을 때 그는 프랑스 군인들을 러시아에서 축출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 그들 스스로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조언을 거부한다. 꾸뛰조프는 또한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프랑스 장군을 포로로 잡는 것이 아닌 침략자로부터 러시아를 해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했다. 민중은 제각기 1805년 전쟁과 1812년 전쟁을 지각했다. 1805-1807년 전쟁에서 군인들은 황제의 관심을 위해 싸웠다. 민중에게 이 전쟁은 불필요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아우스제를리쯔 전투와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전쟁에 패했던 것이다. 그러나 1812년 전쟁에서 프랑스 군인들은 침략자였으며, 러시아 군인들은 이 침략자들을 맞이하여 자기 조국을 방어했다. 러시아 군인의 전투적 정신력은 보다 더 고양되었고 따라서 러시아는 1812년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군사력이 군인의 전투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였으며, 아울러 역사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개별적인 역사적 인물이 아닌 민중의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두 전쟁과 두 군대의 예를 통해 톨스토이는 자신의 역사철학을 확립한다.

## VI. 나오는 말

톨스토이 문학에 있어 전쟁의 주제는 ‘카프카스 이야기’들과 『세바스토폴 이야기』,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각 작품(군)들은 톨스토이의 총체적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톨스토이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이성과 모든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사건”인 전쟁을 마주하여 이 문제를 단순한 관념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실존 문제로 직시하며 이 사건에 참여한다.

톨스토이는 전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카프카스 이야기’에서 타자인 산악민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하였고,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는 처절한 생존조건에서도 세바스토폴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민중들의 애국심을 보여줌으로써, 상류사회의 허위의식을 통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에서 톨스토이는 전쟁을 참혹한 죽음과 피투성이의 부상이 난무하는 적나라한 현실성성의 사건으로 제시한다. 이 작품들을 통해 톨스토이는 전쟁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째서 전쟁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누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가, 누가 이 계획을 실현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길고도 깊은 심오한 대답이 바로 『전쟁과 평화』에서 주어진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전쟁의 경험을 이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다. 여기서도 전쟁은 더러움과 피, 죽음이 혼재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전쟁과 평화』의 조국 전쟁은 자신의 조국을 지키려는 필연성에 의해 소집된 정당한 전쟁이자 방어진 성격의 먼 해방전쟁으로서, 톨스토이에 의해 숭고한 전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쟁의 숭고한 성격은 톨스토이 주인공들의 정신을 변화와 개심(改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작가는 러시아 “민중 사상”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전쟁과 평화』에는 톨스토이의 역사에 관한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sup>14)</sup> 그는 역사적 현상을 학문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14) Д. Ю. Квитко. *Философия Толстого*. М., 1930, с. 106-122. 참조.

미 그는 그것을 전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감히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톨스토이는 모든 것이 만일 우리가 운명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그는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는 자신의 운명의 요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주도권을 부정한다. 그는 이른바 위대한 인간은 단지 사건에 이름을 붙일 뿐, 그것과 거의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상표일 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단지 자의적일뿐, 본질적으로 그는 역사의 운명적 흐름에 강제되었고 영원히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에서 묘사된 것의 내적인 객관적 의미는 이러한 합법칙성의 의식으로 전적으로 총결지어진다. 이외에 구체적인 역사적 현상의 설명을 통해 톨스토이 자신은 사건을 조종하는 움직이는 힘을 정의하는 데 매우 가까이 다가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1812년 전쟁의 결말은 이해하기 힘든 비밀스러운 운명이 아닌, ‘소박함’과 ‘합목적성’을 통해 움직이는 민중의 투쟁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레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I, II, III.』, 박형규 역, 동서문화사, 1978, 1979.  
빅토르 쉬클롭스키, 『레프 톨스토이.1-2』, 이강은 옮김, 나남, 2009.  
앤드류 노먼 윌슨, 『톨스토이』, 이상룡 역, 책세상, 2010.  
Берман Б. И. *Сокровенный Толстой*. М., 1992.  
Билинчис Я. *О творчестве Л.Н. Толстого*. Л., 1959.  
Бочаров С. *Роман Л. Толстого «Война и мир»*. М., 1987.  
Галаган Г. Я. *Л. Н. Толст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этические искания*. Л., 1981.  
Гулин А. В. *Лев Толстой и пути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М., 2004.  
Квитко Д. Ю. *Философия Толстого*. М., 1930.  
Лебедев Ю. В. “Л. Н. Толстой на пути к «Войне и миру» (Севастополь и «Севастопольские рассказы)» //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76. № 4.  
Лебедев Ю. В. “От «Севастопольских рассказов» к «Войне и миру»” // *Литература в школе*. 1978. № 4.  
Линков В. Я. *Мир и человек в творчестве Л. Толстого и И. Бунина*. М., 1989.  
Мелешко Е.Д. *Христианская этика Л.Н. Толстого*. М., 2006.  
Одинокое В. Г. *Поэтика романов Л.Н. Толстого*. Новосибирск, 1978.  
Орвин, Донна. *Искусство и мысль Толстого. 1847-1880*. СПб., 2006.  
*Роман Л.Н. Толстого «Война и мир» в русской критике*. Л., 1989.  
Толстой Л. 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22 томах*.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78—1985. Т. 4, 5, 6, 7, 15. (1979, 1980, 1980, 1981, 1983.)  
Чичерин А. В. *Возникновение романа-эпопеи*. М., 1975.  
Чуприна И. В. *Нравственно-философские искания Л. Толстого в 60-е и 70-е годы*. Саратов, 1974.  
Эйхенбаум Б. М. *Лев Толстой*. Кн.1, 50-е годы. Л., 1928.

## ❖ ABSTRACT

War in Leo Tolstoy's Literature and *War and Peace*

Kim, Sung IL

Cyclical stories on Caucasus and *Sebastopol Sketches*, including *War and Peace*, have generally been said as masterpieces dealing with the theme of war in Leo Tolstoy's literature. Among them, it is no doubt that *War and Peace* is absolutely the best one describing the grand panorama of people's lives and war itself. The plot of this novel consists of the so-called Napoleonic War of 1812 and of diverse lives both from the upper class and lower class, more essentially it dramatically presents how these pictures made all literary participants experienced their destiny and lives. Throughout these texts, war, including of its cause and effects and participants, re-considers and re-evaluates all of each features.

The most important themes in *War and Peace* is war itself as the novel's title says. Rather than a just backdrop to the novel, the wa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the reader with various realistic, philosophic, moral and existentialist perspectives. Moreover, *War and Peace* for the writer shows contradictory two views about war; he severally criticizes the Napoleonic war of 1812 in the sense that it violets people's reason and nature. At the same time, however, Tolstoy considers that the war as liberation is justified and necessary for guarding people's nation, *otechestvo* in Russian.

What the writer attempts to show from this novel, however, goes beyond the simple descriptions which were done above. Leo Tolstoy successfully offers and what he tries to show in the long run is that how people go through all kinds of sufferings and hardship and their spiritual resurrection, thereby leading to the vital force making history. For the writer, the essential force that makes history and people's lives is not heroic military leader like Napoleon, but those common people. And the novel serves a wonderful prelude expecting the Decembrist revolt in 1825, because all of the vital and active streams that Tolstoy emphasizes turn out true in Russian history.

---

**Key Words**

레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1812년 전쟁, 개심(改心), 제카브리스트 반란

Leo Tolstoy, War and Peace, War of 1812, Spiritual resurrection, Decembrist revolt

논문접수일: 2014. 01. 25

심사완료일: 2014. 02. 28

게재확정일: 2014. 03. 12